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樂器의 이미지를 應用한 陶製 花器 디자인 研究

2005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孫 京 姬

# 樂器의 이미지를 應用한 陶製 花器 디자인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孫 京 姬

# 認 准 書

孫京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_\_\_\_\_ ①

審査委員\_\_\_\_\_ ①

審査委員\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 論 文 概 要

인류의 발달과 문화 창달의 과정 속에 음악의 역할은 지대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악을 접하며, 삶에 있어서 윤택함이라든지 건강함을 지향할 수 있는 생활의 도구이고 방편이 되어 왔다.

이런 음악의 속성인 멜로디를 향유할 수 있는 악기를 보면, 아름다운 멜로디와 선율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것의 발전과 미적인 구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기 이미지에 상응하는 고유의 음색과 이미지를 착안해서 화병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화기의 단순한 용도인 꽃을 꽂는 기능 뿐 아니라,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부가적 기능이 중심이 되게 하였으며,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정서에 비중을 두고 연구하게 되었다.

제작방법은 복수제작과 선과 면이 강조되는 석고주입성형으로 하였으며, 태토는 투광성, 뒤틀림, 건조강도, 소성강도 등이 우수한 슈퍼화이트를 이용하였다.

소성은 850°C로 1차 소성한 후, 투명유와 안료를 사용하여 시유하고 전기가마에서 1230°C로 2차 소성하였다.

이 연구가 관성미의 개념에 굳어버린 조형의 사고를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目 次

## 論 文 概 要

<b>I. 序 論</b>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內容 및 方法 .....	2
<b>II. 本 論</b> .....	3
1. 樂器의 考察 .....	3
1) 樂器의 意味 .....	3
2) 樂器의 由來와 種類 .....	4
2. 樂器의 이미지를 應用한 作品 事例 .....	8
3. 試製品 製作 및 說明 .....	12
1) 디자인 意圖 .....	12
2) 製作過程 .....	13
3) 試製品 圖面 및 說明 .....	16
<b>III. 結 論</b> .....	32

## 參 考 文 獻

## ABSTRACT

## 表 目 次

【표 1】 태토 조성비 .....	13
【표 2】 유약 조합비 .....	14
【표 3】 유약 조합비 .....	14
【표 4】 소성 온도표 .....	15

## 圖目次

【도 1】 오은영 作, 「봄의 노래」 .....	10
【도 2】 임형준 作, 「소리Bruit2004」 .....	10
【도 3】 김경진 作, 「作品6」 .....	10
【도 4】 김성희 作, 「協和音」 .....	10
【도 5】 조옥제 作, 「作品6」 .....	10
【도 6】 피카소 作, 「기타」 .....	10
【도 7】 亂舞 作, 「Boisterous Dance」 .....	11
【도 8】 오은영 作, 「유랑의 무리」 .....	11
【도 9】 피카소 作, 「기타」 .....	11
【도10】 김성희 作, 「協和音」 .....	11

# 試製品目次

【試製品1】 圖面 .....	16
【試製品1】 旋律 .....	17
【試製品2】 圖面 .....	18
【試製品2】 合唱 .....	19
【試製品3】 圖面 .....	20
【試製品3】 絃 .....	21
【試製品4】 圖面 .....	22
【試製品4】 調和 I .....	23
【試製品5】 圖面 .....	24
【試製品5】 調和 II .....	25
【試製品6】 圖面 .....	26
【試製品6】 樂 .....	27
【試製品7】 圖面 .....	28
【試製品7】 열 .....	29
【試製品8】 圖面 .....	30
【試製品8】 높은음자리 .....	31

# I. 序 論

## 1. 研究目的

음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꿈과 이상을 구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고를 지향하게 한다. 현대 예술은 다양한 장르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음악은 예술의 하나로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음악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며, 이런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악기다.

악기는 청각적인 면이 주가 아닌 아름다운 조형물로서의 시각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만큼이나 그 형태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기의 형태 안에서 아름다운 음을 담고 있는 상상력을 착안하여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바라다 보는 화기를 통해서 우리의 서정적인 정취를 보다 북돋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래의 꽃을 꽃기 위한 용적인 기능 뿐 아니라, 멜로디를 연상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연출하고자 한다.

또한 화기는 화재와 어우러져 주거공간을 아름답게 재구성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여유로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研究内容 및 方法

음악은 창작이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문명의 위대한 예술 중 하나이며, 시간 속에 내재된 소리이다. 그 근간에는 악기를 통해 아름다운 멜로디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어우러짐은 조형의 대상물로서의 상상력을 불러 넣어주며, 멜로디를 담고 있는 악기의 아름다운 선과 현악기의 특징인 다양한 구조를 조형화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상상할 수 있는 악기를 화기로 옮겨 놓으므로 화기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악기의 의미와 유래, 종류를 알아보고, 악기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 사례를 참고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악기의 철저한 조형적 고찰

둘째, 악기와 화병, 멜로디와 향기의 상관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상상력

셋째, 꽃과의 조화를 감안한 기능성

넷째, 기존 화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유약은 시제품의 외형의 선이 잘 드러나 악기의 형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약을 선정, 사용하고자 한다.

## II. 本 論

### 1. 樂器의 考察

#### 1) 樂器의 意味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경험들은 리듬,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타악기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출 때, 발과 손을 이용하여 박자를 만들어 내는 등 생활 속에서 리듬을 곁들여 살아왔다. 처음에는 자연의 소리에 더욱 가까웠으며, 문명의 발달로 차츰 아름다운 소리를 찾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악기의 사용은 의식주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언어나 문자가 소통이 되기 전부터 물체를 부딪치거나 두들겨서 서로의 안부나 위치 확인, 공포분위기 등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일종의 영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왔을 것이다.

또 기념할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의례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 역시 분위기를 증감하는 요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과 종족간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악기들은 문화의 특징을 고착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감정에 충실하게 된 배경은 문명발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 악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천상의 소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있다. 이렇듯 아름다운 선율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폴란드의 수상이

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테레브스키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고 하였다. 악기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피아니스트의 외침은 자신의 삶을 연마하듯 아름다운 소리를 빚어냈다.

인간의 마음에 각양각색의 느낌을 전해주는 악기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2) 樂器의 由來와 種類

악기는 신호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신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쟁터에서 드럼을 치면 더욱 더 용감해지고 적에게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전쟁에 악기가 자주 사용되었다.

초기의 악기는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막대기, 가운데가 빈 통나무, 소리가 나는 활 가죽통 등이었다.

나무열매를 따 먹으며,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은 풀뿌리, 나뭇잎을 입에 물고 입술사이로 새어 나오는 호흡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박수를 치거나 나뭇가지를 두드리면 발로 땅을 구르며, 여러가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류는 주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문명은 고유의 특성과 재료들, 인간의 신체, 돌, 금속, 가죽, 나무, 동물의 뼈 등을 이용하였고, 1) 생활양식이 발달하고 문화의식이 개발됨으로서 악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근대의 일이다.

---

1) <http://www.e-musicyour.com>

## ① 타악기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타악기는 인간이 무엇인가 두드려 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차츰 춤을 추거나, 의식용, 신호용, 전쟁용으로 사용되었다.

딱따구리 같은 조류가 단단한 부리로 리드미컬하게 나무를 쪼는 소리에서 힌트를 얻어 원시인들은 나무나 돌맹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강약을 주어 두드려 본 것이 시조가 되었다. 단순하고 만들기 쉬웠기 때문에 여느 악기보다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와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가장 원초적이며, 다양한 색깔을 지닌 악기이다. 형태는 가장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으나 다른 어떤 악기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팀파니, 비브라폰, 마림바, 실로폰, 공, 차임벨 등 각기 개성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고, 그 종류도 수 없이 많다.

## ② 관악기

가장 인간적이고, 사람의 숨결이 들어가 소리를 내는 악기로 관악기를 들 수 있다. 관의 재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i) 목관악기

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목관악기는, 사람의 숨을 이용하여 불어넣거나 리이드의 진동을 이용하는 악기다.

원시인들은 속이 빈 갈대의 줄기를 잘라 피리로 만들어 악기로 이용하였고, 세로로 부는 피리의 일종인 리코더는 플루트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

2) [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

## ii) 금관악기

금관악기의 최초의 형태는 동물의 뿔이나 뼈, 패류의 껍질, 금속의 통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신호에 활용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금관악기는 궁정이나 군대에서 광파르나 신호용으로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목관악기처럼 몸통에 구멍을 내고 속을 파내어 소리구멍을 뚫은 다음 다시 그곳에 풀로 붙인 가죽을 씌웠다. 차츰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청동, 은 등이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악기의 형태는 많이 다양화 되고 음역에 따라 그 효용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sup>3)</sup>

## ③ 현악기

인간이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으리라는 것은 B.C. 5~6세기 경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에서 알 수 있다. 체육행사, 음악 경연 대회 등에 활용되었으며, 리어르, 기타라와 같은 현악기를 찬양하였다.

고대에는 현악기의 줄이 동물의 내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주 사용된 동물은 양이었다. 양의 소장을 다듬어 줄을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는 주로 나일론이나 금속으로 줄을 씌운 줄이 사용되고 있다.<sup>4)</sup>

현의 음향은 관에 의한 것 보다 음색이 부드럽고 순수한 느낌을 주며, 기교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악기는 현의 진동에 의한 악기지만, 현의 진동만으로는 좋은 음향을 기대할 수 없다.<sup>5)</sup>

현악기는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피아노, 양금과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기타, 하프, 가야금이 있으며, 현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첼로, 해금의 악기를 들 수 있다.

## ④ 건반악기

---

3) 송진범, 「구조와 역사로 본 음악」 작은우리 p.119.

4) 김경수,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화사 p.108

5) 송진범, 「구조와 역사로 본 음악」 작은우리 p.130

건반이 달린 타현악기인 피아노는 선율악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건반 악기인데도 소리자체가 크고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악기의 이름은 약하고 강하다는 뜻의 피아노포르테가 되고, 이 말이 줄어서 피아노가 된다.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피아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sup>6)</sup>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 ⑤ 디지털악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악기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전기의 이용이다.

전기기타와 같이 악기의 음향적인 진동을 직접전기 진동을 변경하여 증폭한 다음 다시 스피커에 의해서 음으로 환원하거나, 전자오르간과 같이 기계적 수단으로 다양한 전기진동을 만들어 이것을 합성하여 다채로운 음색을 가진 악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6) [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

## 2) 樂器의 이미지를 應用한 作品 事例

현대 예술에서 악기는 청각성과 더불어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으며, 악기의 미적인 요소를 조형물로써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악기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도1】 오은영 作, 「봄의 노래」 관악기의 형상과 돌의 이미지를 접합하여 자연의 소리를 악기를 통해 표현하였다.

【도2】 임형준 作, 「소리Bruit2004」 첼로에 나팔을 장착한 형상을 통해 청각적인 현상을 시각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도3】 김경진 作, 「作品6」 현악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선을 형상화, 단순화 하였다.

【도4】 김성희 作, 「協和音」 현악기의 형상을 투각과 음·양각으로 표현하였으며 3개의 형태가 모여 하나의 울림을 표현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도5】 조옥제 作, 「作品6」 멜로디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쇠를 이용하였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 한 추상적인 형태로 조형화하였다.

【도6】 피카소 作, 「기타」 1912 금속판과 철사 77.5×19.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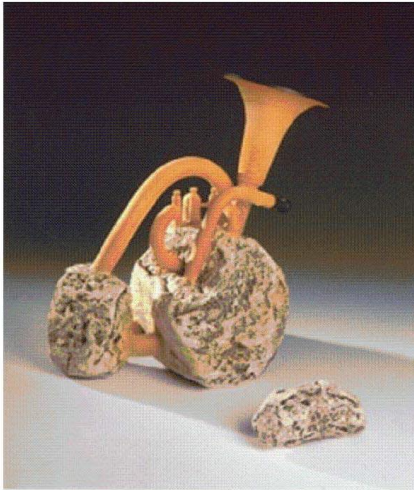
이 콜라주는 기타의 몸체가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몸체의 가운데 부분이 뚫린 실제로 비어있는 공간을 일구고 있으며, 돌출한 원통으로 변형되어 있다.

【도7】 亂舞 作, 「Boisterous Dance」 악기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을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형태가 리듬을 타며, 멜로디를 켜는 연상을 하게 된다. 과 멜로디의 조화를 원추형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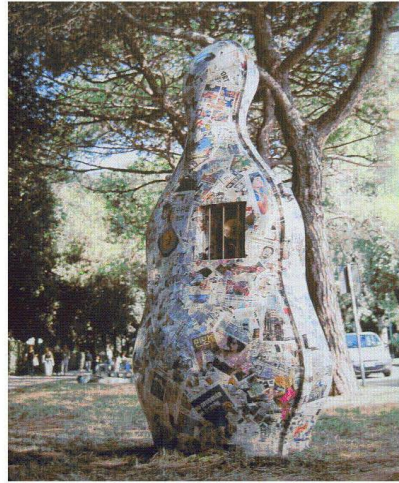
【도8】 오은영 作, 「유랑의 무리」 사각의 공간에 여러 개의 나팔의 형상을 장착하여 소리의 강·약을 표현하고 있다.

【도9】 피카소 作, 「기타」 기타의 형상을 색종이와 신문지로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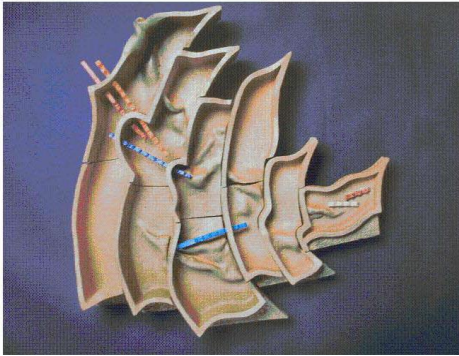
【도10】 김성희 作, 「協和音」 현악기의 형상을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 표현하였으며, 직선은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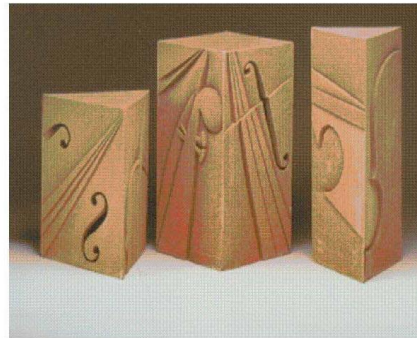
【도1】 오은영 作, 「봄의 노래」



【도2】 임형준 作, 「소리Bruit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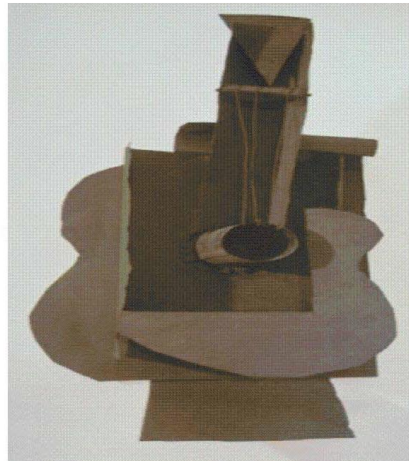
【도3】 김경진 作, 「작품6」



【도4】 김성희 作, 「協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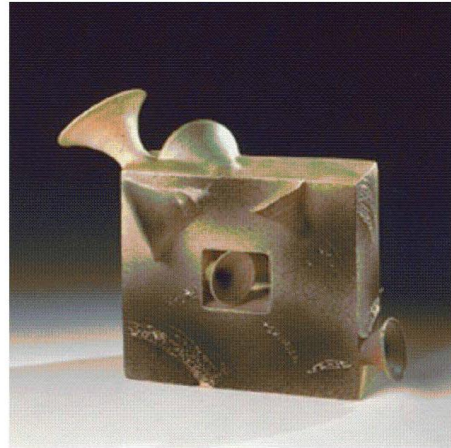
【도5】 조옥제 作, 「작품6」



【도6】 피카소 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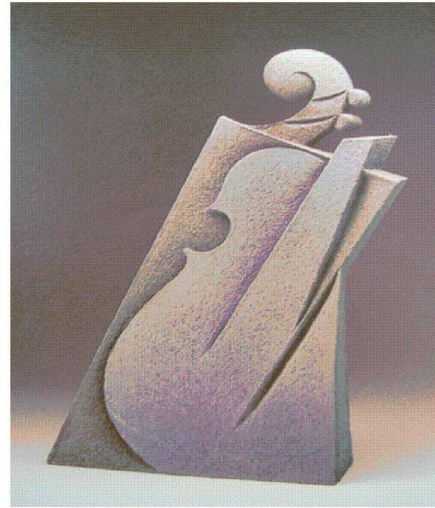
【도7】亂舞 作, 「Boisterous Dance」



【도8】오은영 作, 「유랑의 무리」



【도9】피카소 作, 「기타」



【도10】김성희 作, 「協和音」

### 3. 試製品 製作 및 說明

#### 1) 디자인 意圖

모든 예술 분야가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 역시 생활 속에서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태초부터 감정적, 심리적 성취를 음악을 통해 얻고자 하였으며,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출하고픈 자유의지는 음악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감흥을 조형으로 형상화 시켜서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화기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의도는

첫째, 예술의 한 장르로 시간예술과 더불어 공간예술을 포함하는 악기를 미적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둘째, 현악기의 울림통과 형태의 구조적인 요소가 눈에 들어오면서 악기 고유의 멜로디와 결합하여 화기로 표현하고, 화기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향기를 전해주는 상상력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셋째, 화기를 통해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는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도자의 복수제작에서 오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발상과 작업에서의 유희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생활도자의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각박한 생활 속에 침상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製作過程

### (1) 胎土

시제품에 사용된 태토는 이장주입성형과 발색도가 우수한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이장을 만드는 과정은 점토를 물에 푼 다음, 경험에 의존하여 미량의 해교제(규산소다)를 첨가하고, 또 형태와 용도를 감안한 이장의 유동성에 특히 유념하였다.

<표 1> 태토 조성비

							(%)
SiO <sub>2</sub>	Al <sub>2</sub> O <sub>3</sub>	Fe <sub>2</sub> O <sub>3</sub>	MgO	K <sub>2</sub> O	Na <sub>2</sub> O	TiO <sub>2</sub>	Ig.Ioss
68.14	22.64	0.23	0.42	1.12	1.63	0.07	5.78

(자료 : 고려도토사)

### (2) 製型

태토의 건조와 소성수축률을 감안하여 시제품크기를 15% 확대하여 석고원형을 만들었다. 원형석고 제작 시 표면의 깨끗함과 형태의 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고 시제품 4 는 약기의 구조적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 틀을 제작하였다.

시제품 1, 2, 4, 5는 제품 당 2피스가 완성품임으로 2개의 원형석고와 외형석고 틀을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석고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천천히 건조시켰다.

### (3) 成形

시제품을 이장주입기법으로 성형하였으며, 석고에 이장을 주입하고 석고 틀에 4~5mm 두께가 성형된 후 이장을 배출하였다. 시제품 1, 2, 4, 5는 두개 이상의 틀에서 탈형된 슬립에 접합부분을 고려하여 일정한 두께 차이를 주었다.

접합부분에 있어 균열의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균일하게 건조되도록

하였다.

(3) 釉藥 및 燒成

1차 소성은 850°C까지 7시간 동안 소성하였으며, 2차 소성은 1230°C 까지 전기 가마에서 10시간 동안 산화소성하였다.

유약은 투명유와 코발트유로 분무시유하였다.

<표 2> 유약 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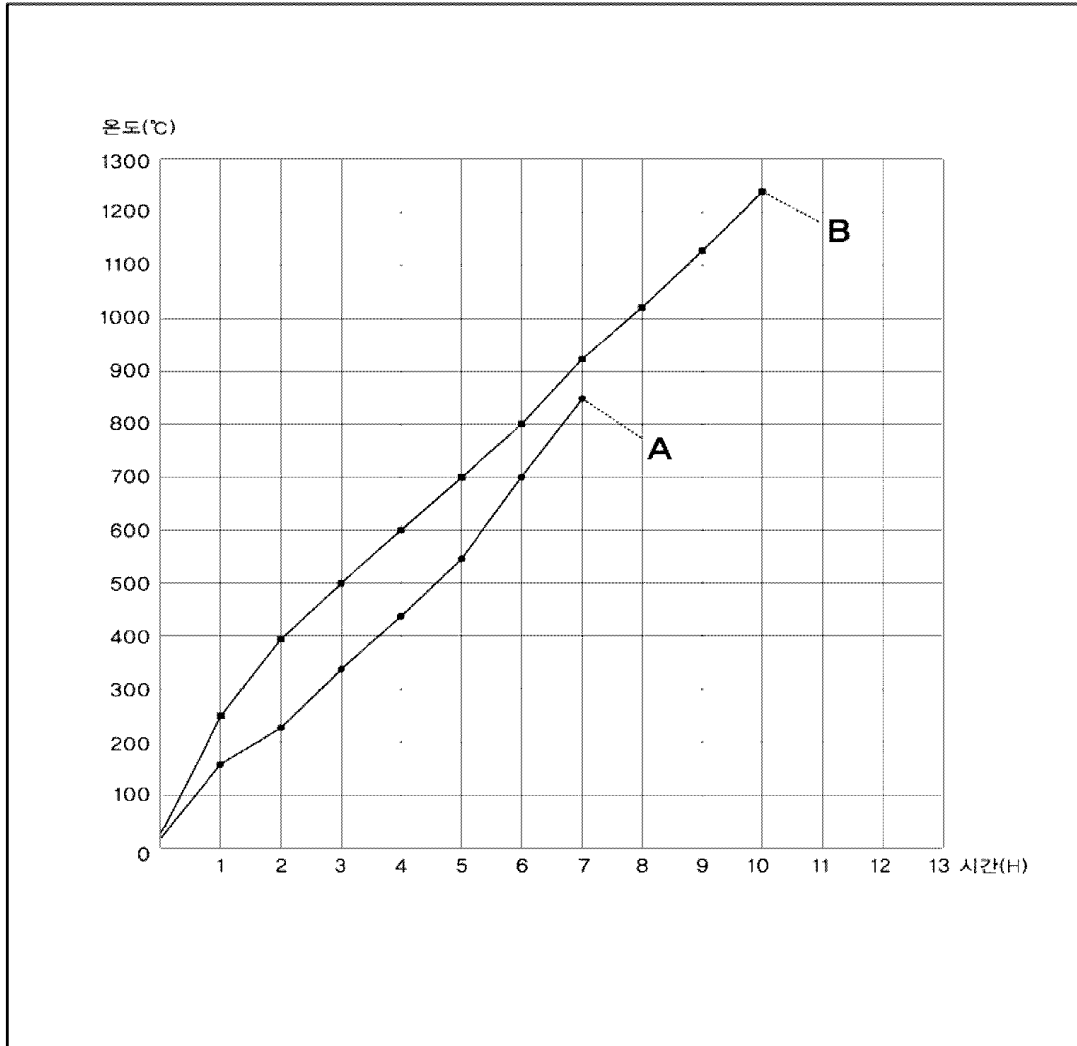
(%)

원료	유약	투명유
나트륨장석 ( $\text{Na}_2\text{O} \cdot \text{Al}_2\text{O}_3 \cdot 6\text{SiO}_2$ )		55
규석( $\text{SiO}_2$ )		10
석회석( $\text{CaCO}_3$ )		15
카오린( $\text{Al}_2\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text{O}$ )		10
아연화( $\text{ZnO}$ )		5
탄산바륨( $\text{BaCO}_3$ )		5
計		100

<표 3> 유약 조합비

안료명	안료/투명유
Blue , Black	$\frac{1}{100}$ , $\frac{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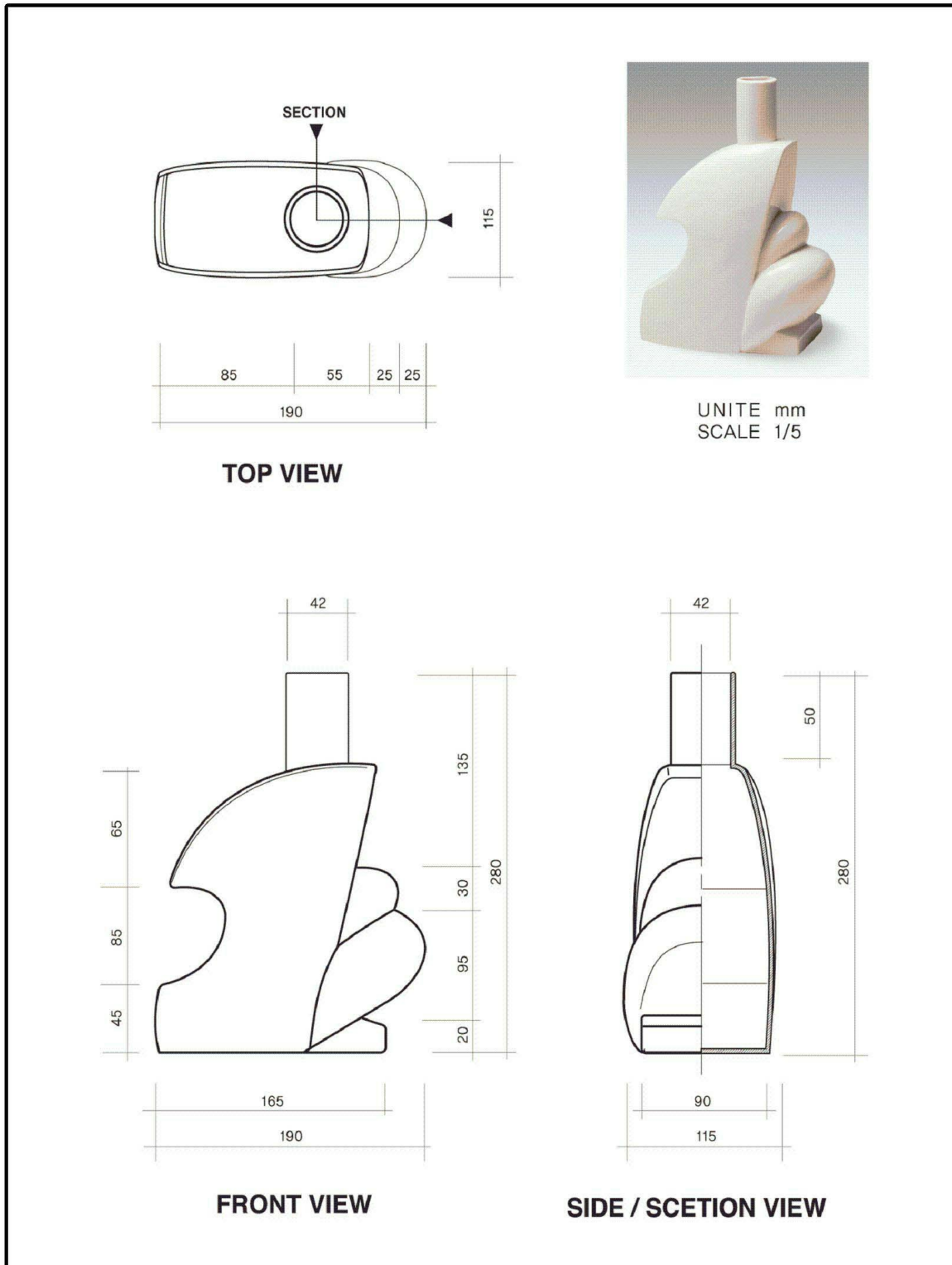
<표 4> 소성 온도표



A: 1차소성      B: 2차소성 (산화)

### 3) 試製品 圖面 與 說明

#### 【試製品 1 圖面】



【試製品 1】旋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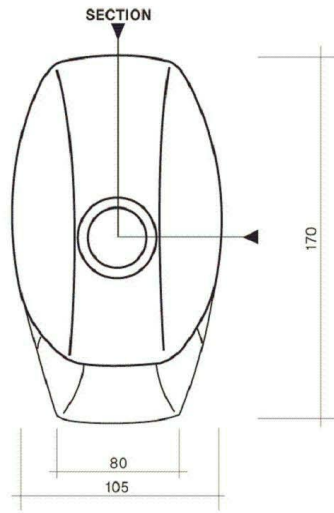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190×115×280 m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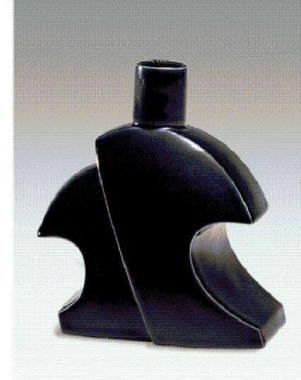
바이올린 형태와 선율의 이미지를 곡선과 직선의 사용으로 결합하였으며, 형태의 양감과 조형성이 강조된 화기는 화재에 있어 아담하고 소담스러운 것이 조화를 이루며, 화기는 사무용품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표면에 격자 문양의 텍스처어를 표현하여 다소 인위적일 수 있는 악기에 자연스러운 형태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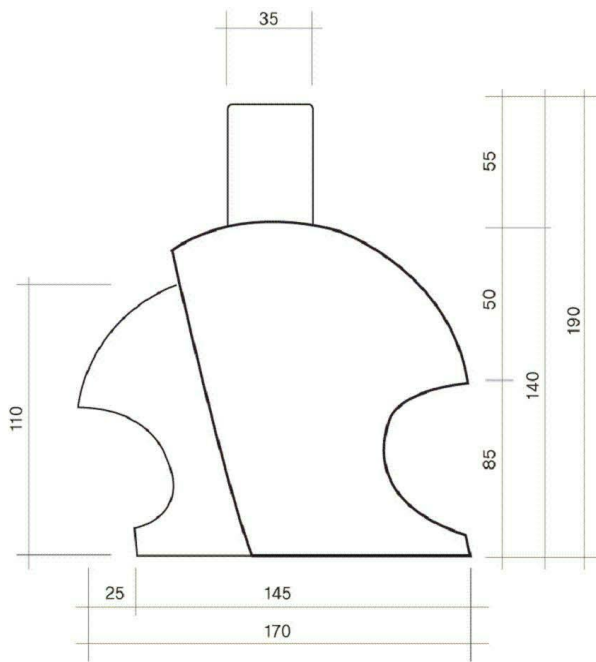
【試製品 2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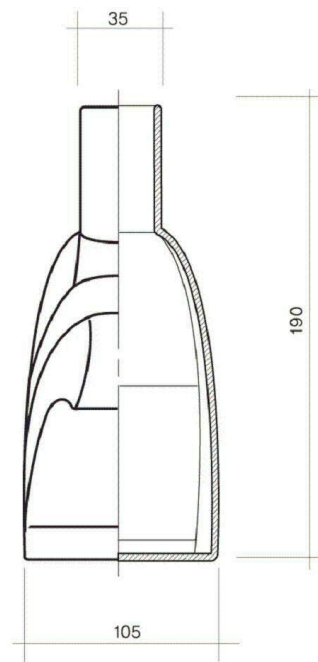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4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試製品 2】 合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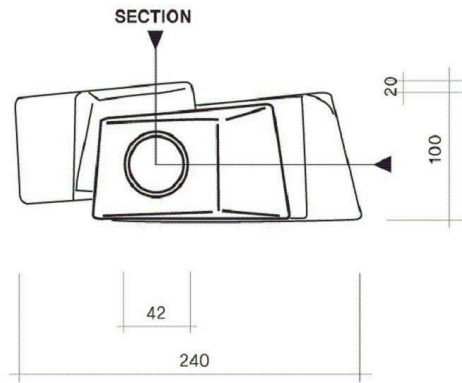
코발트유, 1230°C, 산화소성, 170×105×190 mm(h)

바이올린의 특징적인 선 부분을 2등분하여 곡선과 직선의 대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개의 형태가 접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의 합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무용품의 기능으로, 생활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색안료 blue 2%, black 1.1%를 투명유와 함께 혼합하여 분무시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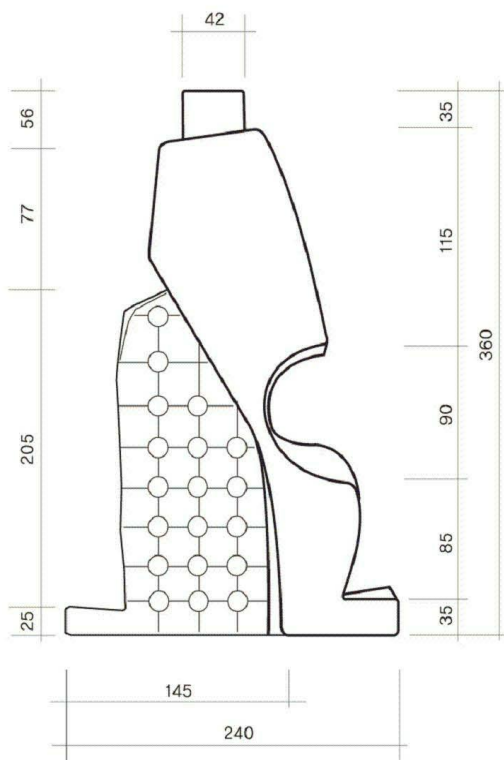
【試製品 3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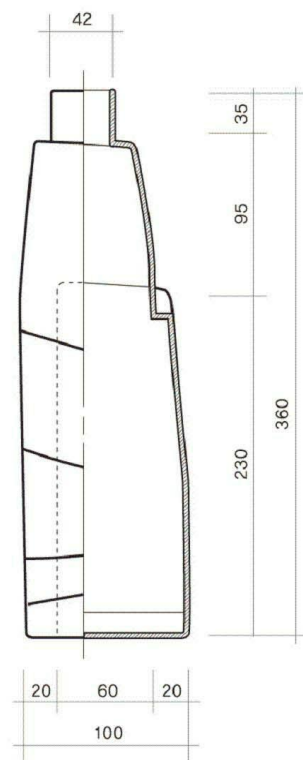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6



FRONT VIEW



SIDE / SECTION VIEW

### 【試製品 3】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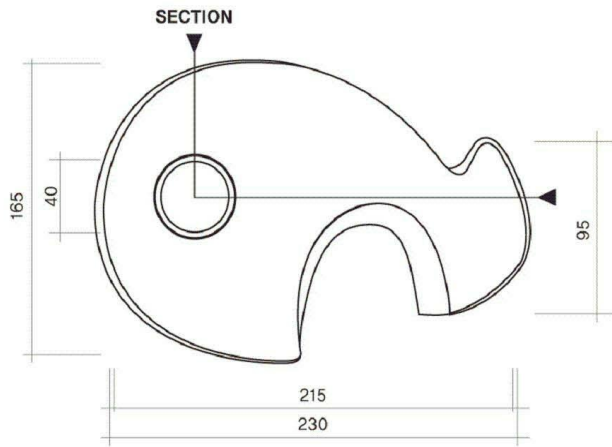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240×100×360 mm(h)

기타의 형상을 직선의 사용으로 악기의 기본적인 형태를 일탈하면서 새로운 조형의 의미를 부가하게 되었다. 텍스처에 있어 조각적인 면은 기타의 코드를 표현하였으며, 형태와의 조화로움을 이루게 된다.

대형화 된 화재를 꽃기 위해서 밑 부분에 안정성을 주었으며, 조형성이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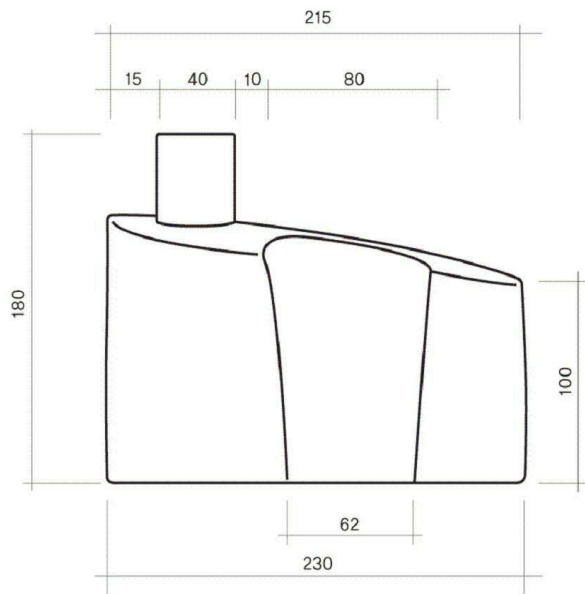
【試製品 4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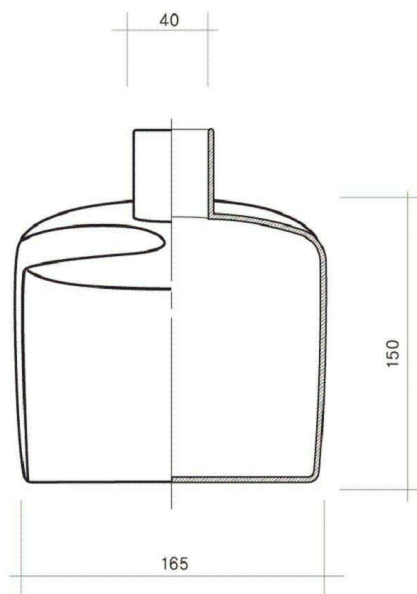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4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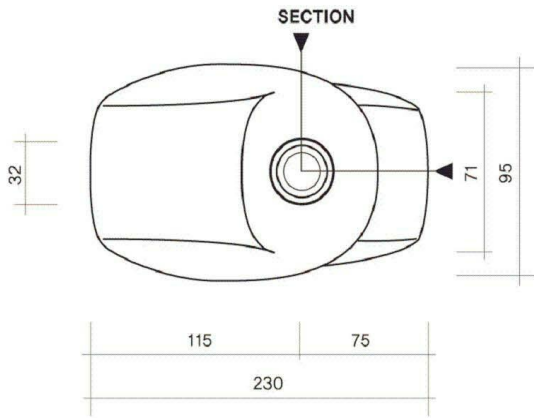
【試製品 4】 調和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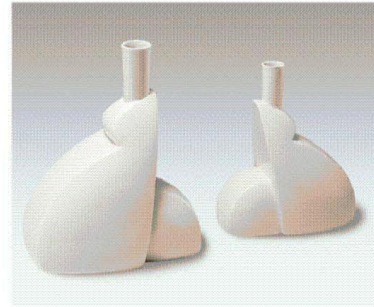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230×165×180 mm(h)

현악기의 울림통과 음색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두개의 형태가 따로 놓여졌을 때도 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 기능적인 요소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top view가 효과적이며, 좌식이나 tea table에 놓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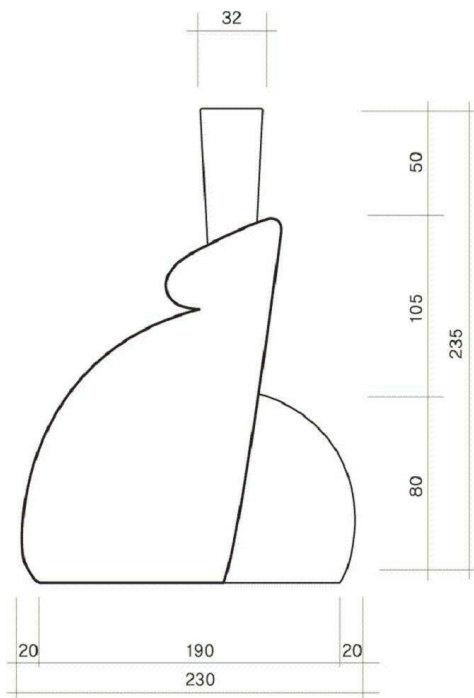
【試製品 5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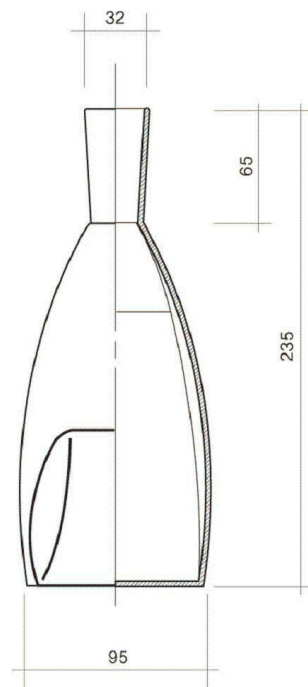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4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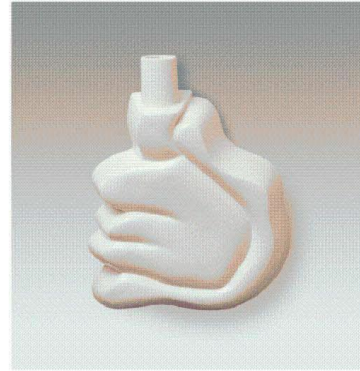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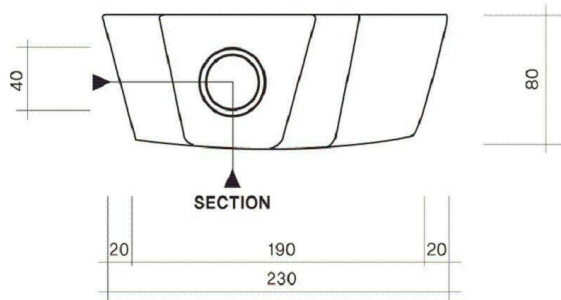
【試製品 5】 調和Ⅱ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190×95×235 m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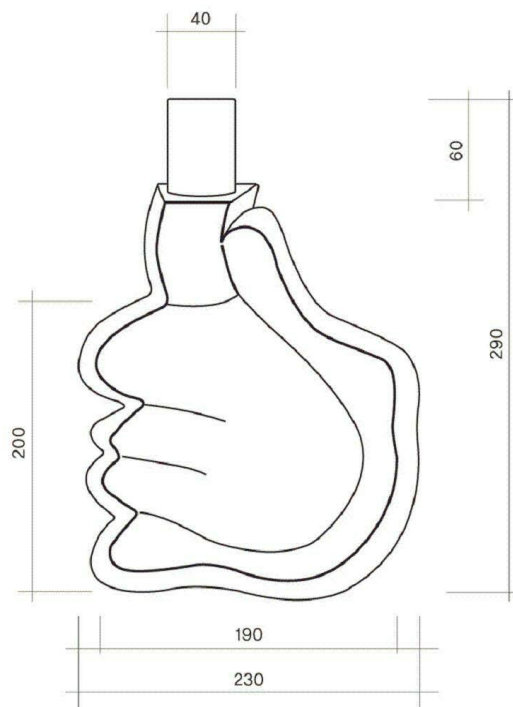
현악기의 울림통의 형상과 음률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게 된다. 형태에 비해 물대가 좁아서 많은 양의 화재를 담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試製品 6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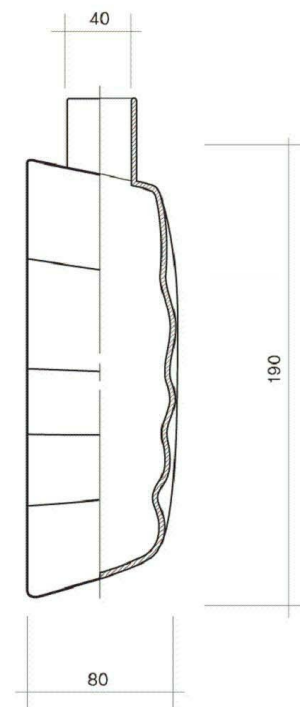


UNITE mm  
SCALE 1/6

TOP VIEW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試製品 6】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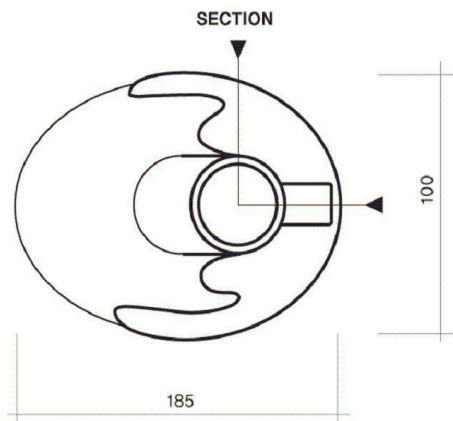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230×80×290 m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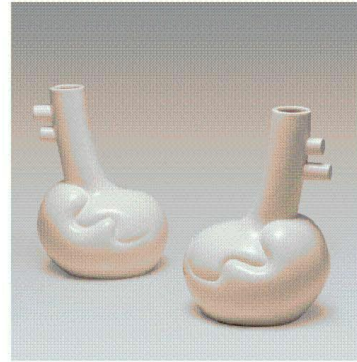
하프의 화려하고 부드러운 형상을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화기의 조형성이 강조되어서 화재는 가지형태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을 꽃게 되었다.

벽걸이용 화기니 만큼 두께는 낮게 하고 아담하게 꽃을 꽃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주거공간의 한 부분인 벽면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화재를 통한 삶의 향기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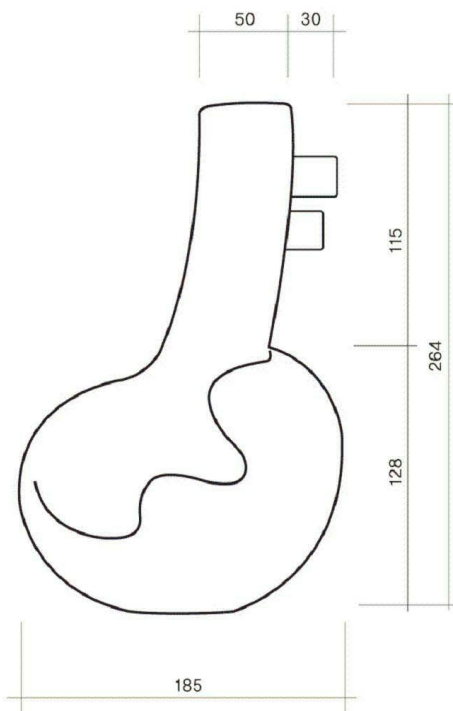
【試製品 7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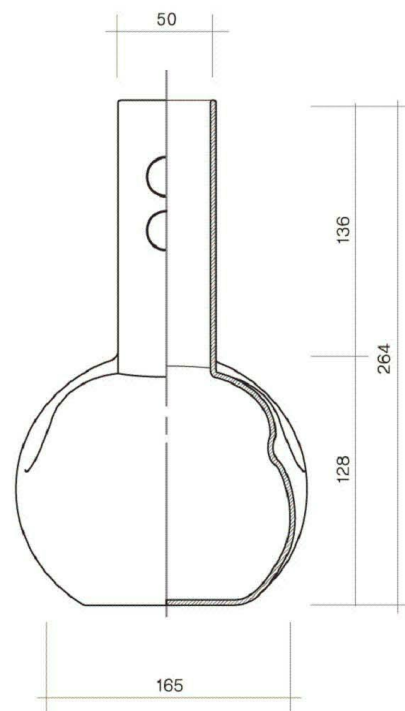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6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試製品 7】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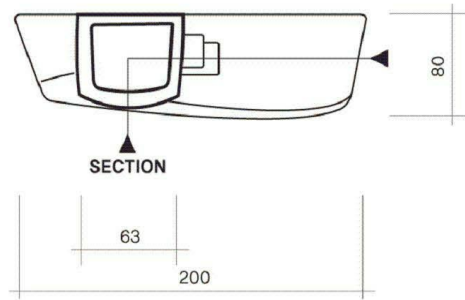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185×165×264 mm(h)

해금의 형상을 곡선으로 표현하여 양감을 주고자 했으며, 형태의 구조적 요소인 줄감개를 표현함에 있어 현을 켜는 듯한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형태의 무게 중심을 생각하고 높이는 꽃을 꽃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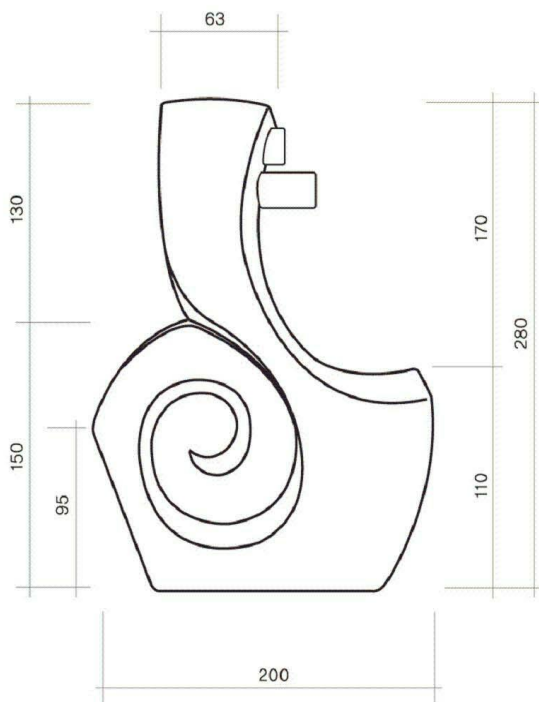
【試製品 8 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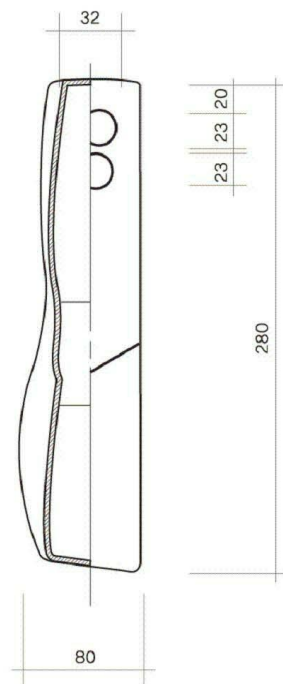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5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試製品 8】 높은음자리



투명유, 1230°C, 산화소성, 200×80×280 mm(h)

높은음 자리를 직선, 곡선의 표현으로 선의 높낮이를 구분하였으며, 이장주입 성형으로 탈형 후 장식적인 부분을 접합하였다.

협소한 주거공간에 화기를 벽면에 장식함으로 반복된 일상에서의 일탈과 함께 싱그러운 꽃 내음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 Ⅲ. 結 論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음악은 삶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과 풍요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며, 음원인 악기는 상상의 또 다른 구심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악기의 형태를 화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형의 입장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악기의 형태가 화병이라는 주제로 등장하면서 화병을 통해 음률을 상상하는 기대감과 서정적인 의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었다.

둘째, 변화되는 현대 주거공간에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생활공간에 새롭게 연출되어 생활과 아름다움을 밀착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셋째, 악기의 구조적인 선과 음색을 화기로 표현함에 있어 감상적 대상으로서의 심미적인 충족은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었다.

넷째, 단순한 대량생산의 복수제작이 아닌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섯째, 악기의 조형성이 강조됨으로서 화기로서의 기능과 발색의 다양함이 부족하였다.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미적욕구가 진지해지는 시점에 기호와 성격에 맞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김경수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한국문화사, 2000.

김경진, “악기의 형태를 통한 도자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김성희, “협화음을 위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김을곤 「새악기 해설」 아름출판사, 1995.

마순자 역, 「20세기 미술의 발견-(파블로)피카소」, 도서출판 예경, 1995.

송진범 「구조와 역사로 본 음악」 작은우리, 2000.

오은영, “음악적 이미지의 도자조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조옥제, “음악적 선율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월간미술: 부조리한 실존의 이유 있는 발성-임형준」 (주)월간미술 2004, 11  
월호.

SAICHI MATSUNIOTO 「陶」, 1992.

<http://www.e-musicyour.com>

[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http://kdaq.empas.com/dbdic/db_view.tsp?num=3151451&ps=src&pq=)

# **ABSTRACT**

## **A Study on a Design for a Ceramic Vase Applying an Image of Musical Instruments**

**Son, Kyung Hee**

**Industrial Ceramic Major**

**Dept. of Plastic Arts**

**Bulletion of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is certain that music would be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human and cultural developments. Music has been a device to pursue for prosperous and healthy life. We have met it through a variety of media in daily life

Musical instruments which possess a melody, one of their properties remind us of beautiful melodies or rhythms and their development and aesthetic structures may become an inspiration to us.

Therefore, this study shows a method to manufacture a vase that represents its own typical tone or image.

Besides a function to stick a flower, a function which allows us to imagine music was added. Accordingly, the study put importance on men's healthy life and emotion.

A manufacturing method was a plaster-injection modeling to emphasize a line and a surface. Superwhite clay was selected which has excellent transparency, twist, dry solidity and plastic intensity.

Plasticity was conducted at 850°C and then again conducted at 1230°C in an electrical kiln with clear oil and pigments.

I expect that the study can play a role in avoiding stereotypes for ceramic designs.